

여성의 지위와 주거공간의 변화*

The Status of Women and Residential Space

고지현** 양세화***
Koh, Jihyun Yang, Sehwa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the changes of housing in the context of women's status since civilization in Korea. The purpose was accomplished by review of existing related literature. It was concluded that the changes of women's status due to social changes had meaningful influences on various characteristics of housing. The location of kitchen, housing service, the recognition of housing as a shared space for the family are those which were influenced by changes of women's status.

keywords: Status of women, Residential space

1. 서론

다원화·계층화 사회로의 전환은 9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다. 이는 인구의 공간적 재배치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도시 내의 주택 분야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이지순 외, 2002). 이러한 사회변화는 사회구성원 중 특히 여성의 지위 변화에도 영향을 주어 주거공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주택에 대한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차츰 전환해 나가고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데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이로 인한 소득증대가 일조를 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생활과 주거환경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관점에서 주거환경을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김혜정, 1997). 이에 본 연구는 근대 이후 우리나라의 주거공간의 변화를 여성의 지위 변화의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존 문헌 및 선행연구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내용은 여성학적 관점에서의 주거학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위한 한 시도이다.

* 본 연구는 200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 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한 연구의 일부임.

**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석사과정

*** 울산대학교 주거환경학 교수

II. 여성의 지위와 주거 인식

1. 여성의 지위

여성의 지위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적 지위는 크게 가정 영역과 공공 영역에서 살펴보아야 하며, 주로 인간이나 사물의 통제에 관련된 정치적, 법적, 교육적 활동에서 살펴보아야 하나 우리나라는 사회생활의 기본구조가 전통적 사상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가족제도 내에서의 여성 지위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대 가족은 외견상 여성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부부 중심의 가족을 이루고 있으나 그 기능이나 역할 분담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요소가 크게 남아 있다. 또한 친족관계망의 약화 및 핵가족의 부부중심 구조는 가족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며느리의 입장보다 아내 및 딸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과 불행한 결혼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여성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함인희, 1993). 현대에 들어 여성의 법적 인권의 보장과 많은 교육기회의 균등에 따른 사회진출, 그리고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따라 여성의 지위는 보다 향상되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지위 면에서 보면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경제적 참여는 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증대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성차별적 직업분리 현상으로 인하여 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이후 1997년 경제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경제위기 시기에서는 여성들은 남성보다 먼저 해고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따라서 여성은 사회의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적

분야에 걸쳐 불평등한 처지에 놓여있다.

2. 여성의 주거 인식

이경희(1996)는 여성의 주거에 대한 인식을 하비(D. Harvey)의 공간적 실천에 관한 분석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하비의 분석틀에 따른 여성의 주거인식

구분	여성의 주거인식
공간의 사용	주거공간의 사용은 단순히 공간을 점유하며 실용화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장소를 돌보고 보존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동시에 자아정체성을 위한 하나의 뜻으로 삼는 것을 뜻함.
접근가능성과 거리화	주거의 접근성은 주거를 근거로 하는 여성들에게 있어 취업 장소나 일상생활 지지해주는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등이 여성들의 일상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됨.
공간의 지배	주거의 소유와 통제 부분이다
공간의 생산	주거생산과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주택정책이나 도시계획, 소비생활의 많은 부분을 정부로부터 결정된 사항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기능을 해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공간의 사용’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주거공간을 생활의 본거지로 삼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실제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기보다는 내적(자녀돌봄)·외적(직업선택 어려움)인 제한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접근 가능성과 거리화’는 주거지 위치 선정에 있어 여성들의 행동반경을 결정하고 주거를 중심으로 공식적이며 비공식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공간의 지배’에서 주택 소유의 기회는 남여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부분은 남성이 주택 소유권을 가지게 되고 그로인해 여성은 주거 소유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공간의 생산’에서 여성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는 주거문제를 연구하는 인력자원이 필수적 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 한다.

III. 여성의 지위와 주거공간의 변화

과거에는 가부장권의 지속적인 강화로 인 해 여성의 삶은 사회적 공간보다 개인적 공 간인 주거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

계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우 리나라에서는 개화기 이후에서야 사회제도의 개혁과 함께 여성도 단계적으로 사회적 지위 를 누리게 되었으며 이 때부터 여성의 생활 영역이 가정생활에서 점차 사회생활로 확대 되면서 주거영역도 점차 변화하였다. 시대별 주택평면의 변화(<표 2> 참조)를 여성의 지 위 변화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1. 개화기 - 1950년대 초

1910년 이전은 한국 사회 내부의 근대화

표 2. 시대별 주택의 평면특성

시기	주택유형	평면사례	평면의 변화 개념		
			지속부분(M)	변화부분(N)	M · N
개화기 - 1950년대 초	공영표준 주택 (갑형)				
	민영도시형 한옥				지속부분: 안채구조(M) 변화부분: 바깥채의 기능변화(N')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초	전쟁전후 도시주택				
도면출처: 대한건축학회 이십년사, p175, 유재우 재인용, 2002					
1960년대 초 - 1970년대 말	민간 적용형 도시주택	전열 3칸 후열 3칸	평면 사례 '69 영등포 주택	전열 3칸 후열 4칸	평면 사례 '78 전주시 L씨택
1980년대 - 1990년대 초	LDK 형식의 아파트		1990년대 이후		
대구 앞산 보성 아파트 31평형(84) (도면출처 손광재, 1995)			전주 송천동 B아파트 32평형(95) (도면 출처 이보라, 2001)		

주) D. 다다미방, R. 온돌방, K: 부엌, B: 욕실, ▼. 현관.

기운으로 인해 여성관에 큰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다(홍형옥, 1992). 각종 여성단체가 조직되었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문화활동, 사회활동, 신앙활동이 전개 되었으며 옛 관습에 의존하던 법적 지위도 변화하였다.

이 시기의 주거는 공영 주택의 경우 평면내 속복도를 도입해 현관에서 각 실로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민영 주택의 경우 안채 기능만을 강화하여 생활에 필요한 위생 시설 등을 실내에 배치해 근대화시켰다(유재우 외, 200 2) 이것은 신교육의 보급으로 인한 여성의 인간 권리에 대한 자각을 그대로 주거공간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여성의 주택문화 운동의 영향으로 부엌, 욕실, 화장실 같은 근대적 주거 요소를 갖게 되었고, 핵가족에 필요한 생활규모에 기능적인 구성과 근대적인 위생 공간이나 현관 등을 수용한 평면 변화 내용은 여성의 삶과 가족의 삶을 보다 편하게 만들었다.

2. 1950년대 중반 - 1960년대 초

1950년대의 여성 운동은 미약하나마 여성의 권익과 지위를 회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소수의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었고 일반 여성들은 생활고로 인해 권익이나 보호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신영숙, 200 1). 전쟁을 겪으면서 생계를 위해 사회생활을 하게 된 여성을 위해 주생활은 기능과 효율을 고려하여 가사작업의 동선을 감소할 수 있도록 배려된 주거유형으로 속복도 대신 마루를 내부 동선을 위한 공간으로 대체했고, 부엌을 안방을 거쳐 통행하는 방식에서 점차 마루로 동선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변경해 안방과 부엌을 분리했다. 따라서 최초로 가사 동선이 배려된 주거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에서 소외된 부엌은

주 사용자인 여성들에 대한 공간적 차별과 함께 권익이 아직도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다.

3. 1960년대 초 - 1970년대 말

경제개발과 함께 제조공업이 활기를 띠면서 여성의 노동력은 매우 중요해졌다. 그로 인해 맞벌이를 하는 여성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 일은 모두 여성의 차지였다.

이 시기의 주거는 전열부는 재래주택의 '안방-마루-건너방' 구성을 갖고 후열부는 다양한 생활형과 가구마다 필요한 여건에 맞춰 칸을 필요에 따라 조절해 적용할 수 있는 변화부분으로 구성하고 장방형 결집구성에서 집중식 구성으로 변화하였다(유재우 외, 2002). 공간의 변화 요인은 맞벌이로 인해 경제여건이 나아지면서 주택규모 증가 욕구와 다양한 실에 대한 요구, 그리고 여성의 가사 일을 덜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는 주거 내 여성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시기로,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은 주거 내 부엌 설비의 발달에 의한 가사작업 공간의 발달을 가져왔고 소외되었던 부엌 공간이 가족생활의 중심 장소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대청에서 거실로의 변화정착은 서구식 개념의 주거 내 자아표현 의식의 태동을 가져오게 되었고, 급배수 설비의 발달로 인한 화장실 공간이 주거 건물 내에 들어옴(김혜정, 1997)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외부 가사노동 공간은 점점 주거 내부에 위치하기 시작하여 가사노동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4. 1980년대 - 1990년대 초

주거공간이 여성들의 영역으로 고정관념화

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여성들의 주생활 변화는 물리적 주거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핵가족화의 가속화와 경제력의 향상은 여성들의 물리적 시간을 벌게 함으로써 사회 문화적 관심의 증대와 교육의 기회 획득으로 이어져 여성도 더 이상 값싼 노동이 아닌 전문직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다. 또한 저변 문화의 확대와 매스컴의 영향으로 가족들의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여, 더 이상 여성만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가족 모두 가사 일을 돌보아야 하는 주체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주거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부엌이 더 이상 여성만의 공간이 아닌 가족 모두의 공용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1980년대는 거실과 부엌이 일체화되는 소위 LDK형식이 정착하게 되었다(최윤경, 2003). 또한 사람들의 넓은 공간에 대한 욕구는 더욱 더 이러한 주거 형태를 촉진하기에 이른다.

5. 1990년대 이후

여성 교육의 향상으로 인해 여성의 사회진출은 보다 촉진되었으며 사회에서 남녀구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맞벌이 부부가 더욱 증가하였고 가사를 분담하는 부부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변화와 함께 여성의 역할은 숨어서 하는 일에서 보여 지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1990년대에 들어서면 LDK형식의 주방과 거실의 일체화는 심화되고 완전하게 정착하기에 이른다. 여성의 경제권도 상승하여 가족 내에서의 주거 결정권은 여성이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주택에 반영하듯 1991년에서 1995년대의 시기에는 거실보다 부엌이 주택의 중심으로 부상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여성의 작업이 가족생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최윤경, 2003). 또한 주생활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여 여성들의 가사작업 시간이 현격히 감소하면서 여성들의 여가활용 시간이 현격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주택 투기는 여성들의 경제권을 증대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하여 주택 시장은 여성들의 경제 활동의 장으로 변용 되어 결과적으로 여성 경제관의 변화를 더욱 더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개인적 성향이 강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중요성, 동질적 문화 공유를 원하는 독신 여성의 증대와 인터넷 문화의 파장으로 인해 주거 내 공적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직 여성이 점점 늘어나고, 경제력 있는 그들의 결혼 시기가 점점 늦어지면서 문화생활을 추구하는 독신여성을 위한 주거지도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화기 이후 주거공간의 변화를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의 지위 변화와의 맥락에서 살펴보았다. 조사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의 주거 내에서의 부엌은 전면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사공간만이 아닌 가족 모두의 공간으로 변화해 갈 것이다. 둘째, 주거 내에 상주하는 여성의 수가 줄면서 지금과는 다른 형태의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셋째, 주거공간은 여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가족 모두의 공유공간으로 변화 발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지위 향상으로 인한 주거환경의 변화는 계속 될 전망이며 앞으로의 주거는 사용자의 상황에 따른 요구에 맞게 주거가 적절히 조절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변화된 행태와 사회인식의 정도에 걸맞는 주거공간을 정의하기 위해 정진하는 일

이다. 또한 현 주거의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며 사회의 인식을 조정해 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리라 본다.

대부분의 관련 선행연구가 여성의 삶에 따른 주거의 변화가 아닌 주거공간의 변화로 인한 여성의 삶을 고찰한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남는다.

참고문헌

1. 김혜정(1997). 우리 나라 근대 주거공간의 변천을 통한 여성 주생활 변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여성생활연구집, 2, 31-48.
2. 손광재 외(1995) 대구지역 아파트 평면과정의 변천과정과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1, 8, 121-131.
3. 신영숙(2001). 해방 이후 1950년대의 여성단체와 여성운동.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여성연구논총집, 15, 1, 4-24.
4. 유재우, 조성기(2002). 근대화 과정에 나타난 도시주택 평면형의 변화특성과 토착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계획계, 18, 7, 59-66.
5. 이경희(1996). 주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회논문집, 12, 2, 191-226.
6. 이보라, 진정(2001).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공동주택 평면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1, 2, 1-4.
7. 이지순 외(2002). 신수요 계층의 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계획 방안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13,4, 53-60.
8. 최윤경(2003). 주택평면에서 나타난 여성의 사회 공간적 지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9, 1, 81-88.
9. 함인희(1993).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한국 여성개발원 10주년기념 학술대회논문집, 151-176.
10. 홍형욱(1992). 한국주거사. 서울; 민음사.